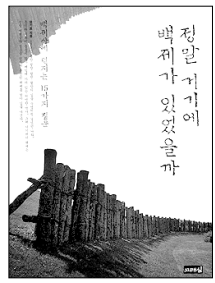


'日 국보 1호 불상' 조성 신라일까 백제일까

정말 거기에 백제가 있었을까
임기표 지음
고래실 / 1만4천원



기원전 고구려 유민에 의해 세워져 700여 년 동안 격조 높은 문화를 꽃피웠으나 660년 신라에 의해 멸망한 '비운의 왕국' 백제.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나라이지만 사료부족과 폐망한 국가에 대한 승자의 역사왜곡 등으로 그 역사적 실체에 대해서는 갖가지 이설(異說)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역사가들은 아직 백제의 건국시조는 누구이고 왕성(王城)의 위치는 어디인

지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고고미술사학자 임기표(37·매장문화연구소 연구원) 씨는 '백제는 마구잡이 근대화의 최대 피해자'라고 말한다. 백제에 관련한 자료로는 <삼국사기>와 중국 역사서 <구당서> 등 손에 꼽을 정도라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백제 유적지는 근

아다났다. 이렇게 건져 올린 연구 성과와 관련 쟁점들을 정리함으로써 진정한 백제의 실체를 밝혀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지은이는 한국 불교미술이라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주로 불교미술사학과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예컨대 '미륵사지 석탑이 먼저

미궁 속 백제 역사 20년간 추적 의문점 15가지 사실 근거로 풀어

대화 과정에서 마구 개발했다는 것이다. 1971년 발견 때 불과 11시간 만에 유물이 수습된 무령왕릉의 발굴 과정이 그 단적인 예다. "아직도 옛 백제 영역이었던 땅 속에는 못다 한 역사 이야기들이 묻혀 있다"는 지은이는 20년 남짓 국내 유적지는 물론 일본 오사카와 교토 등 백제의 숨겨진 서린 곳을 구석구석 찾

일까 정립사지 석탑이 먼저일까' '백제는 중국 요서 지방에 식민지를 두었나', '태안과 서산 마애삼존불의 부처 이름을 무엇일까' 등 "백제를 제대로 알기 위해 꼭 밝혀야 할 의문점과 남겨진 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1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던진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그동안 밝혀진 사실과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제시하고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사진 왼쪽)과 너무나 흡사한 일본 국보 1호 목조반가사유상은 그 조각기법과 적송(赤松)이라는 재질특성 때문에 제작국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있다. '일본 국보 1호 불상은 신라가 만들었을까, 백제가 만들었을까'에서는 독일의 실존철학자 카를 야스퍼스(1883~1969)가 "인간 존재의 가장 청정하고 원만하고 영원한 자태의 상징"이라 극찬한 일본 국보 1호 목조반가사유상과 우리나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83호)을 비교함으로써 이 두 불상의 제작지를 살피고 있다. 또한

일본 법통사 문전(夢窓)의 구세관음상이 백제 성왕의 모습을 본떠 만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을 비롯해 백제사의 초기 왕성의 위치 등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록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일반인들의 백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한 보양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만해학보> [만해사상실선선양회 부설 만해학회 엮음, 화남, 1만원]=통권 7호.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한 신용하 백범학술원장과의 대담, 법타 스님의 '북한불교와 평화통일', 종명 스님의 '한국 불교근현대기의 승려 노동주자에 대한 연구' 등을 담았다.

■ <돌과의 대화> [이소립 지음, 한누리미디어, 1만원]=광양 서산사 주지를 맡고 있는 소립 스님의 수상집. 책에 실린 20여 편의 글은 동두천 문인협회지에 실렸던 것으로, 일반인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란 무엇인가', '나의 유식론' 등을 주제로 생활 속의 이야기를 풀고 있다.

■ <하루 30분 웰빙 요가> [윤두병 지음, 인디북, 1만5천원]=요가를 배우고 싶지만 여유가 없어 요가교실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 자신의 몸에 맞는 자세 코르티코와 생명을 마시는 호흡법, 자신을 비우고 바라보는 명상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과 임신부를 위한 요가도 그림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 <메이드인 아세안> [김종찬 지음, 새로운사람들, 1만2천원]=불교방송 '아침저녁'을 진행했던 정치경제평론가 김종찬 씨의 34번째 저서. 경제 불투명과 안보 협력 간의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는 현 상황에서 동남아국가연합인 아세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고대 印 힌두이즘에 빛진 서양

동양인 최초로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를 역임하고 제3대 인도 대통령을 지낸 정치가이자 현대 인도사상을 대표하는 철학자 라다크리슈난(1888~1975). 그는 인도철학을 세계무대에 올려놓은 철학자로 평가 받고 있다.

동양종교와 서양사상
라다크리슈난 지음 / 김형준 옮김
무우수 / 1만5천원



그의 저서 중 인도철학의 고전으로 평가되는 <동양종교와 서양사상>은 둘 사이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추적하는 일종의 비교종교학 또는 비교철학 책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동양종교'란 중국의 종교 사상인 유교와 도교가 아니라 인도의 종교 즉 힌두이즘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에는 불교의 사상도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그가 1936년 10월 20일 옥스퍼드대 교수에 취임하면서 행한 첫 공개강의를 비롯해 1938년까지의 강의를 모은 것으로 1939년 옥스퍼드대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서문에서 "전

문의적 정확도보다 인간 문화와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 높은 정신을 추구하려는 많은 일반 대중을 위한 책"이라고 밝힌 그는 동양이 서양의 사상에 미친 영향은 신비주의적인 요소이며, 그것은 태초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가 훗날 과학에 그 영역을 내줬을 뿐이라고 말한다. 324 페이지를 펼쳐보자. "서양에게 동양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것과 같은 모험의 고향이며 마술의 근거지, 갈망의 땅이고 그 결과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에게 모든 영혼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에 확신을 주는 영원히 로맨틱한 수수께끼였다."

라다크리슈난의 저서 <인도철학사>를 번역했던 이거룡 교수는 "이 책의 주요 관심사는 인도철학이 삶을 부정하는 현실 도피의 사상이 아니라 빛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고 말한다.

'가깝고도 먼 나라' 日 뿌리는...

한·일 전통문화 비교론
홍윤식 지음
지연미디어 / 2만원



홍윤식 서울국악예술중고교 교장(동국대 명예교수)이 우리 전통문화의 구조적 성격을 일본과 비교한 <한일전통문화비교론>을 펴냈다. 책에는 홍 교수가 일본 유학시절과 일본 대학에서의 교수생활 등을 통해 느낀 한일 양국

의 문화와 비교방법, 입장차이 등을 서술한 40여 편의 글이 담겨 있다. 1장 '한국전통문화론'에서는 한국 불교문화와 국악의 전개양상과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구조를 살피는 '한국의 불교민속놀이', '국악교육 달라져야 한다' 등을 실었다. 2장 '일본전통문화론'에서는 일본인들의 다양한 불교종파를 한국과 비교하고 3장 '한일 전통문화의 비교와 전망'에서는 두 나라의 역사관과 문화구조의 차이 등을 비교 분석했다.

신문사 생활 20년간 맺은 인연

정말 봄은 오는가?
김상희 지음
여시아문 / 9천원



"시간이 떠밀려 잊혀지고, 망각의 늪으로 사라져가는 기록과 사람들. 나는 그들과 다시 만나는 기쁨 때문에, 그들이 못다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남기고 간 미련을 찾기 위해, 오늘도

이 밤에 촛불을 밝혀 이 글을 쓴다." 매일경제신문사와 한국잡담 등에 근무했던 지은이 김상희 씨가 막내딸에게 보낸 편지를 자신의 글과 함께 묶었다. 수습 후유증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편지를 통해 자녀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고자 하는 부성(父性)을 느낄 수 있다. 책에는 20여 년 동안의 직장생활과 그 사이 인연을 맺게 된 지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경각
2	아! 붓다	빅 닷 한	반디미디어
3	불교의 이해와 실행	조계종교원	조계종출판사
4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5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력	우물 스님	효림
6	화엄의 바다	관용 스님	밀알
7	수행의 단계	달라이 라마	들녘
8	영가천도와 49재	박연진	민족사
9	법상에 들어가다	정세채	모색
10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립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시키는 기법.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채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 누구나 길을 찾아 원하는 삶을 열어준다.
- ◆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고요의 평온 속으로 이끌어 준다.
- ◆ 삶에 지친 몸과 마음에 프라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 가진 것은 잃게 되고 배운 것은 남듯이 내가 클수록 장애가 심하고 내가 작을수록 세상이 가벼운 것. 간. 쓸개 배고 살면 부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속을 텅 비우면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매공.선밀공.프라나호흡.프라나 동작.36장 관조·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 3단계 : 천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들)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본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천문 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격 : 24세 ~ 33세까지
- 학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류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매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동덕1동 729-4
☎ 053)471-0433

불교와 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재)대한불교진흥원이 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2004 3·4월호 주요 내용

특집 | 한국 불교의 선맥(禪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새대 교체가 다시쓰는 한국 선종사, 한국 선불교의 맥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를 다각도로 점검해 본다.

한국 불교의 법맥(法脈)과 선맥은 근본부터 다르다
현대계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과제
지금 왜 내강법회인가 - 세대 교체가 한국 선불교가 나아갈 길

교리 - 지혜의 샘

생활인을 위한 경전 읽기
「유마경」(2) 유마월이란 누구인가
지상중계 | 불교경전경쟁
혹박논리를 비판하고 중도를 논한, 용수 보살의 「중론(中論)」
수행 -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재가불자를 위한 눈높이 수행, 수행의 ABC
참선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나
서양인의 참선수행 체험기
승산 스님의 제자 제인 도보즈가 말하는 "나의 스승, 나의 禪 수행"

문화 속으로

마음을 밝혀주는 세계 음악여행 | 티베트 음악
성낙주의 석굴암 건축기행 | 주실의 돌 지팡이
공연리뷰(뮤지컬 '말마미야') 연기실예 의한 자아찾기
성보박물관을 찾아서 | 수덕사 근역성보관(佛殿聖寶館)
테마가 있는 문화산책
- 불전의 하늘궁전, 단결(단산 생계사 - 완주 화암사)

자연과 사람

절집의 나무들 | 은행나무
내가 만난 불교문화 | 불교 건축학자 김경기
등산 길을 밝히는 사람들
- 뮤지컬 연출가 이광림(오세암) · 박근형(나부상화)
서양 불교계를 빛내는 불교인 | 로리스 프로그램 개발자, 미첼 카포

불교 정보참고

고전 읽기의 즐거움 | 연암 박지원의 '규공담법(龜公談法)'
한국불교관계는저총합색인(2003, 2004 단행본 · 학위논문)

격월간 「불교와 문화」 전화 02-719-2606, www.buddhistculture.co.kr